



## 혈당측정기·혈액분석기 국산화 美·日 등 80여개국에 수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아이센스



아이센스(사장 차근식·사진 왼쪽, 남학현·오른쪽)는 혈당 측정기와 다양한 혈액 분석기를 개발·생산하는 바이오 기업이다. 이 회사의 대표 제품은 바이오센서 기술을 적용한 혈당 측정기 '케어센스'다. 존슨앤드존슨 에보트 바이오 등 글로벌 의료기기가 과점한 세계 시장에 아이센스는 국산 혈당 측정기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아이센스는 미국 일본 유럽 등 80여 개국에 케어센스를 수출하고 있다. 매출액 80%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인다.

광운대 화학과 교수인 차근식, 남학현 사장이 2000년 창업한 아이센스는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으로는 처음 매출 1000억원 고지에 올랐다. 2013년 826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 회사는 이듬해 92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010억원으로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직원 수도 2013년 451명에서 지난해 522명으로 확대됐다. 아이센스는 두 곳의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 전담인원만 77명(지난 5월 기준)이다. 연구소에서는 자가 혈당 측정 시스템과 혈액 가스 분석기, 면역센서 제품 개발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도 2013년 7.6%, 2014년 9.1%, 지난해 9.5%로 꾸준히 증

가하고 있다.

아이센스는 2000년 5월 최고 사양의 바이오 센서를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당시 혈당 측정기는 4μl(피가 주르륵 흐르는 정도)의 혈액이 필요했다. 아이센스는 혈액 한 방울(0.5μl)로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를 선보이고 혈당 측정기에 적용했다. 측정시간도 기존 30초에서 5초로 6분의 1로 단축시켰다.

혈당 측정기와 혈당 측정 검사지, 전해질 분석기 등 의료기기는 제품 품질에 대한 요구가 까다롭다. 환자 생명과 건강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아이센스는 본사에서 생산하는 30여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취득했다.

아이센스는 혈당 측정기 기술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케어센스 N' 시리즈는 특허 받은 자동모딩 시스템을 장착했다. 코드칩을 삽입하거나 코드 입력 단계를 줄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아이센스는 지난해 중국에 공장을 짓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증권업계에서는 아이센스의 올해 매출이 전년보다 20%가량 늘어난 1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미현기자 mwise@hankyung.com



## 암수술 가장 많이 하는 병원 맞춤형 암치료 서비스 호평

### 암병원부문 대상 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은 국내에서 암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병원이다. 국내 암 수술 중 10% 이상은 서울아산병원 암병원(병원장 유창식·

사진)에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은 수술 잘하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3차 병원(대형대학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환자가 가는 4차병원이라는 입소문이나면서 많은 환자가 찾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은 712병상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2013년 1만7467건, 2014년 1만8508건, 지난해 1만8815건으로 수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선정한 2015~2016년 최고병원 통계에 따르면 암 치료 분야 1위 MD앤더슨 암센터는 631병상 규모에 8656건의 수술을 했다. 2위인 메모리얼슬로언캐터링 암센터는 469병상 규모에서 1만1370건의 수술을 했다. 이들과 비교해도 서울아산병원의 수술 건수가 많다.

최초, 최고 기록도 갈아치우고 있다. 이 병원의 대장암센터는 국내 최초로 대장암 수술 2만7000건 이상을 했다. 직장암 환자는 수술로 암이 완치되도 항문 기능을 잃어 평생 장루를 통해 대변을 해결해야 한다. 자연히 삶의 질도 낮다.

서울아산병원 대장암센터에서 수술 받은 직장암 환자 10명 중 9명은 항문 기능을 최대한 보존해 장루 없이 배변할



수 있다. 항문에 가까운 하부직장암도 83% 정도는 항문 괄약근을 보존하는 수술을 했다.

안세현 유방암센터 교수팀은 2만 6000건 이상의 유방암 수술을 했다. 수술 후 5년 생존율은 90%를 넘는다. 김병식 위암센터 교수팀은 복강경 위암 수술을 7500건 이상 했다. 세계 최하다. 남주현 부인암센터 교수팀은 복강경 자궁경부암 수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600건 이상 했다.

복강경을 이용해 초기 자궁경부암 수술을 하면 수술 후에도 임신이 가능한 환자가 많다. 유창식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장은 "암환자는 암이 언제 전이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스트레스가 커 빠른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진단부터 수술까지 3주 안에 치료가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2006년 국내 최초로 암 통합진료시스템을 도입했다. 암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서면 진단,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분야의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맞춤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형 암치료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지현기자 bluesky@hankyung.com



## CEO들이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종합병원 분야 9년 연속 1위

### 건강의학센터부문 대상 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은 올해 초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조사에서 종합병원 분야 1위를 차지했다. 이 분야 9

년 연속 1위다. 이 같은 명품병원 위상은 삼성서울병원이 아플 때 찾아가는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삼성서울병원이 '건강을 예방하고 관리해주는 곳'으로 자리잡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개원과 함께 건강의학센터(본부장 이우용·사진)를 열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밀 건강검진 개념을 도입했다. 의학 영양 운동 스트레스를 모두 아우르는 정밀 건강검진은 오늘날 대다수의 검진센터가 도입하고 있는 검사구조다.

삼성서울병원은 건강관리와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분야별 전문 클리닉을 개설했다. 평생고객 건강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수진자 건강상태에 맞는 맞춤 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20년 넘게 운영한 건강검진 노하우는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가 지닌 최대 강점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최초에만 머무르지 않고 늘 최고를 지향한다. 이 병원의 건강의학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 건강검진 센터다. 최첨단 의료 장비는 물론 국내에서 가장 많은 70여명(단일 센터 기준)의 건강검진 전문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 수진자에게 꼼꼼하고 신뢰성 있는 검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 병원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에선 10만명당 689명꼴로 암이 발견된다. 국내 신규 암환자 발생률(312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는 예약, 검진, 결과상담 등 모든 과정에서 고객이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건강검진센터에 능동형 근거리무선통신(RFID) 시스템을 적용해 최소 대기시간 및 동선을 계산해 수진자가 가야 할 검사실을 안내해 준다. 수진자는 별다른 조작 없이도 빠르고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 중 질환 의심 소견이 나오면 외래, 입원, 수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기본 건강검진과 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 건강검진, 주요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암 정밀 건강검진, 뇌심혈관 암 조기 진단과 전문 교수진의 의학상담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건강검진, 독립된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전담 코디네이터(간호사)의 가이드와 함께 상담과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숙박 건강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지현기자 bluesky@hankyung.com

# 2017 KT&G Asian Students' Venture Forum

## 아시아대학생 창업교류전 서포터즈 모집

모집기간 2016. 11. 7. ~ 2017. 1. 23.      국제대회 2017. 3. 30. ~ 2017. 4. 3.

지원자격 전국 대학(원)생 누구나      문 의 한국경제신문 대외협력국 ☎02-360-4520

※ 자세한 사항은 [www.se-con.co.kr](http://www.se-con.co.kr) 에서 확인하세요